

경영을 잘하려면 어떤 공부를 더 해야 할까요?

얼마 전에 방문한 지역에 생활박물관이란 곳이 있길래 가봤어. 거기서 책에서만 보던 베틀을 처음 봤지.

옷감을 짜는 원리를 보자면, 날줄과 씨줄이 있을 것 아니니. 세로로 놓는 실을 ‘날줄’이라 하고, 가로 방향으로 놓는 실을 ‘씨줄’이라 하지. 그게 교차되면서 옷감을 짜는 거야.

유학 가려는 학생들이 가끔 추천서 부탁하러 오거든. 그때마다 나는 “외국 가서 뭐 공부하려고 그러니?” 하고 물어봐.

그러면 “요새 빅데이터 마케팅이 중요한 것 같아서 그걸 공부하러 갑니다” 또는 “다가올 ESG 시대를 대비하려고 합니다”, 어떤 학생은 “NFT 마케팅을 공부해보고 싶습니다” 하고 대답해.

그러면 내가 말하지. “그런 서류를 타는 공부도 다 좋은데, 그건 씨줄이거든? 날줄부터 공부해보지그래.”

날줄은 뭘까? 그건 기본적인 거야. 심리학, 사회학, 경제학, 역사학 등. 씨줄은 시대가 달라지면 필요가 확 줄어. 반면 기본, 그러니까 날줄을 공부해두면 씨줄은 언제든지 끼워넣을 수 있지.

카를 라거펠트Karl Lagerfeld 알지? 시대를 풍미한 최고의 패션 디자이너이자 엄청난 독서광. 독일 태생으로 스무 살 때 파리에 가서 패션 일을 했는데, 서른이 되자 미술사(art history)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이탈리아로 갔어.

라거펠트에게 직업이 뭐냐고 물으면 줄곧 ‘역사학자’라고 대답했대. 왜 역사를 알아야 하냐고 물으면, 디자이너는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하는데, 그러려면 메가트렌드를 읽어야 하고, 그러려면 역사를 알아야 한다고 했다는 거야. 메가트렌드란 잠깐 지나가는 유행이 아니라 큰 흐름을 말하잖아.